

도·해·매력
특별시서울

SLEI-2023-B-009

SEOUL
M! SOUL



2023 모두의학교 성과자료집

The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

서울특별시립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발간사

part1. 모두의학교 히스토리

○ 모두의학교 연혁	03
○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사업 ‘한 눈에 보기’	05
○ 숫자로 보는 모두의학교	06
○ 모두의학교 사업 Review	08
○ 모두의학교 사업 의미와 차별점	09
	20
	27

part2.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두의학교

○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35
○ 커뮤니티의 힘: 성장 스토리	36
○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변화 스토리	49
	57

모두의학교 운영진 소개

65

“시민들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참여 중심, 배움의 결과를 공유하다**

2023년에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모두의학교’는 팬데믹 이후 더욱 가파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 가치로 삼아 “함께 배우고, 더불어 여는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변화하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위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4학기 체제로, 일상 속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중장년 및 약자 동행 등 민선 8기 시정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배움의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 중심으로 진행된 개인·공공의 학습 결과물을 기부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커뮤니티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며, 자신만의 학습 여정을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와 협업하며, 폐자재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그동안 흙바닥이던 ‘모두의학교’ 운동장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모두의학교 성과자료집』을 통해 지난 6년간 ‘모두의학교’가 경험했던 변화와 고민, 시도 등 시민과 평생교육을 연결했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모두의학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만나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유유히 흐르도록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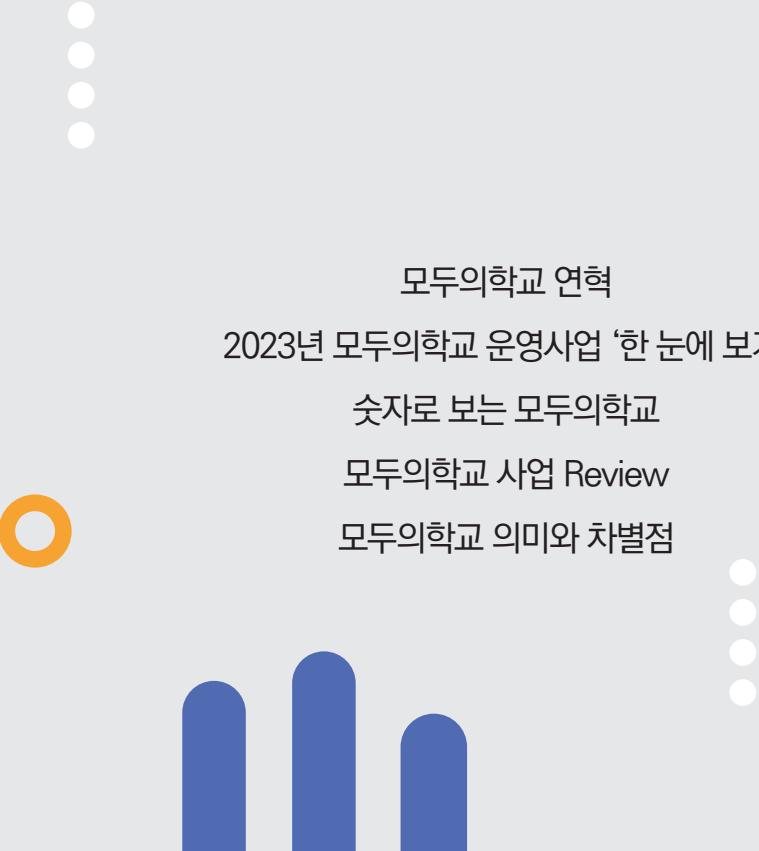


part

1

모두의학교 히스토리

The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 연혁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사업 ‘한 눈에 보기’

숫자로 보는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 사업 Review

모두의학교 의미와 차별점

모두의학교 연혁

저출산의 여파로 점차 초등학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구)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독산동에 위치했던 한울중학교가 흥일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2013

'13.08.
현장시장실 :
서립도서관 건립 →
“모두의학교” 추진 결정

2016



'16.08.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사무로 이관

'16.08.~09
공간 설계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2017



'17.09~12.
모두의학교 시범사업 운영



'17.10.28
모두의학교 개관식 개최

2018



'18.03.
4학기 체계 수립 및 본격
운영



'18.09.
모두의책방 오픈

‘이전하고 남은 독산동 학교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었고

혁신적인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는 공공의 평생학습센터를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되어 지금의 ‘모두의학교’가 생겨났습니다.

2019



'19.03~12.
학기별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2020



'20.05~12.
코로나 대응,
온라인 기반 사업 운영

'20.11.
세대별 소프트스킬 및
프로그램 개발 체계 정립

2023



'23.05.
모두의 운동장 조성
(나이키코리아 협업) 및
오픈 행사 개최

'23.09.
모두의 운동장,
행정안전부 혁신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21



'21.03~12.
코로나 지속, 온·오프라인
기반 사업 운영

2022

'22.06.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모두의학교 사례발표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사업 ‘한 눈에 보기’

4학기 운영 체제

요구조사(버킷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

소프트 스킬

생애주기별 ‘소프트 스킬’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설계

다양한 학습과 경험

세대별 맞춤형·전 세대 대상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참여형·과정형 프로그램

모두툴킷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역량 지원

시민 커뮤니티

학습을 통한 순수한 배움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모두아띠

공유공간 운영 및 아띠 프로젝트 기획·운영

숫자로 보는 모두의학교 6년

2018년~2023년

“학습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다”

2018년~2023년

2023년

모두툴킷 워크숍

30개	638명	4개	76명
-----	------	----	-----



봄, 여름, 가을, 겨울 프로그램

551개	11,563명	87개	2,201명
------	---------	-----	--------



581개	12,201명	합계	91개	2,277명
------	---------	----	-----	--------



“커뮤니티, 성장하는 **시민**과 만나다”

2018년~2023년

2023년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다.

2018년~2023년

2023년

시민커뮤니티

146개 642명



26개 173명

공유프로젝트

103개 3,880명



18개 615명

249개 4,522명

합계

44개 788명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

388명



61명



“배움의 공간이 되다”

2018년~2023년

2023년

“모두의학교가 알고싶다”

2018년~2023년

2023년

모두의학교 공간 대관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등

385회
8,535명



66회
2,615명



벤치마킹 투어 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611개 기관
2,202명



19개 기관
316명



2023년 모두의학교

‘벤치마킹! 투어’



필리핀
교육부 공무원
한국 정책연수



이슬람 교육과학
문화기구 ICESCO
교육국 관계자 방문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모두의학교 기관방문



2023년 NEW
모두의학교

새롭게 태어난
‘모두의 운동장’

변경 전



변경 후



May
5월

- ▷ 글로벌 스포츠 기업 나이키와 협업, 폐자재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개념 운동 공간 ‘모두의 운동장’ 조성.
- ▷ 전세대가 놀이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틀바꿈함

2023년 **NEW** 모두의학교

누구나 책도 읽고 사색하는 공간,

‘모두의책방’ 공간 재구성

변경 전



변경 후



- ▶▶ 시민들이 책방을 더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분리하고,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구를 재배치함

2023년 **NEW** 모두의학교

평생교육 강사 모두 모여라!

‘서울시 평생교육 강사 연수’

5회

181명



- ▶▶ 서울시 평생교육 영역(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 대상 강의스킬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함

2023년 **NEW** 모두의학교

성장하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학습공간 지원형
커뮤니티**

+
모두의학교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공간운영형
커뮤니티**

5개
커뮤니티

총 48명
활동

3개
커뮤니티

총 103회
공간 운영



2023년 **NEW** 모두의학교

문화가 꽃피는
‘모두공연장’

12회

1,000
여명 참여



▶▶ 음악회, 문학 북토크, 가족뮤지컬, 운동회, 모두나누장 등

모두의학교 사업 Review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 사업 배경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가치’를 중심에 두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목적과 방향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설계 프로세스를 담은 툴킷을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긴 개발과정 동안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의견 수렴과 검증을 통해 다듬고 보완하여 2021년 ~2023년에는 모두툴킷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영역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업 내용

모두툴킷이라는 카드형 툴킷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공공·민간영역의 참여자들은 **교육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도출 총 8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의 가치와 의미,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 사업 시사점

2023년에는 **모두툴킷을 사용하여 기획한 결과물 중에 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선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동작구 평생교육 활동가들이 기획한, 평생 학습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도움되는 ‘나의 미래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전국 평생교육사들이 기획한 중학생 대상 ‘선풀 프로그램’을 모두의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4년에는 모두툴킷 영상·매뉴얼·다운로드 되는 카드가 담긴 **e-book이 개발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 사업 키워드

#주도성 #가치 #평생학습실험실 체계적

학기별 정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2017년 개관 이래 개인의 삶과 세상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엮어내기 위한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체험 중심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마음 에너지 변화량 측정 도구인 **소프트스킬**을 연구하여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에 적용하였고, **생애 주기별로 소프트스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업 내용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전문영역, 전문기관, 세대 등에서의 융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함을 통해 평생교육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들과도 협력할 수 있었



습니다. 세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와 함께 학습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사업 시사점

2023년에는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에서 **학기별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두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 앙상블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더불어 **인문학 중심의 프로그램 영역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동물권, 글쓰기, 영어그림책 놀이, 일본문화 등 모두의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학습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 공헌성 프로그램인 **‘모두공연장’을 월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음악회, 문학 북토크, 가족 뮤지컬, 운동회, 물물교환 행사 등 총 12개 행사에 1,000여명이 참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업 키워드

#새로배움×서로배움 #융합 #소프트스킬
#모두공연장

주인공학교

✓ 사업 배경

주인공학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찾아가고 발굴하는 능동적인 프로젝트로 **중·고교생들에게 평생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의학교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교육 행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등 교육 과정 외의 수업을 기획하고 모두의학교는 평생학습자의 관점에서 삶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자원을 교환합니다.

✓ 사업 내용

교과서, 시험, 성적 등이 주인공인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느끼고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을 실현하고, 평생교육의 대상을 전세대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연간 4~5개 학교와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시사점

청소년의 평생학습 경험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주인공학교는 2023년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체적 약자인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했으며 **장애를 가진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별과 차별에서의 경계를 허무는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 사업 키워드

#인생의 주인공 #진로직업탐색 #평생학습 경험

7학년 교실

✓ 사업 배경

평생교육에서 고령층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세대이나 주로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참여자의 이미지로 굳어있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고령층도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들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시작으로 2018년에는 가장 고리타분하고 소통이 어려운 계층이라는 편견이 있는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꽃할배 놀이터/기획단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벗어나 남성 어르신들이 본인의 삶을 회고하고 청년들과 요리 수업을 배우고 수업을 넘어 외부에 모두의학교를 주체적으로 알리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 사업 내용

고령층의 주체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거쳐 2023년, “다시 가는 학교” :

“**7학년 교실**” 사업으로 고령층의 지속적인 학습 및 주체적인 자기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례화했습니다. 학교처럼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해 고령층의 소속감을 높이고 1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학우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영상 자서전 “한 편의 편지로 남기는 삶” 등을 통해 본인의 삶과 다른 세대와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업 시사점

7학년 교실은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모두의학교 공유 주방 시설을 활용하여 한 달에 두 번, 각자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식사하고 건강에 대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진정한 **평생학습의 “주체자”**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사업 키워드

#고령층 #지속학습 #7학년 #우리는_학생
#한 편의 편지로 남기는 나의 삶



시민 커뮤니티

해당 공간 기반의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간운영형〉까지 네 가지 유형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배경

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시민이 평생학습의 수혜자에서 운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 또는 학습공간, 역량강화 기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 시민 커뮤니티학교 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2023에는 시민커뮤니티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사업 내용

모두의학교 학습공간에서 심화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학습공간 지원형〉 커뮤니티와 자유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자유주제 학습형〉, 사회적 가치·공공성에 기반한 주제로 관련 공유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는 〈공공 주제 실천형〉, 모두의학교 내 공간(모두의 책방, 모두카페, 모두놀이터)을 운영하고



✓ 사업 시사점

올해는 특별하게 모두의학교 내 공간(모두의 책방, 모두카페, 모두놀이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간운영형〉 커뮤니티와 보조금 지원 대신 모두의학교 학습공간만을 제공하는 〈학습공간지원형〉 커뮤니티를 신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시민참여형 공간 운영'을 실현하였으며, 평생학습활동 전반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정규 프로그램 수강 후 〈학습 공간 지원형〉 커뮤니티를 결성한 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진정한 '시민 주도의 학습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자부합니다.

✓ 사업 키워드

#커뮤니티 활동 #시민참여형 공간운영
#시민 주도의 학습문화 활성화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

프로젝트(뜨개질, 캘리그라피, 영화관 등)를 진행합니다. 모두아띠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및 봉사시간&수료증을 발급해드리고, 다양한 행사 참여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 배경

그간 모두의학교는 공공기관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019년, 시민의 사랑방이자 평생학습 공간이 되어 주는 공유공간(모두카페, 모두놀이터 등)의 조성하고 '모두아띠'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꿔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시스템과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거쳤고 2021년 후반기부터 공유공간이 자리를 잡아 배움과 교류가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전면에서 시민을 만나주시는 모두아띠님들 덕에 모두의학교가 서울 시민의 일상 속 평생학습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 사업 내용

모두의학교에 있는 시민 공유공간인 모두의 책방, 모두놀이터, 모두카페, 모두의 운동장, 모두의정원 등에서 공간 운영을 돋고 다양한

✓ 사업 시사점

올해 처음 금천시니어클럽과 50+ 기관과 협력하여 더 다채로운 모두아띠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모두아띠의 주축이 되어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 환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으로 각 공간들이 더 살아나고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모두아띠 분들께서 '모두나누장' 행사에 직접 물품을 기부하고 행사 운영도 진행하였고, 9월부터 직접 옥상텃밭에서 키운 무와 배추를 11월에 김장김치도 같이 만들고 기부하는 작업들을 통해 처음 기획했던 모두의학교에서 만의 연결통로를 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 사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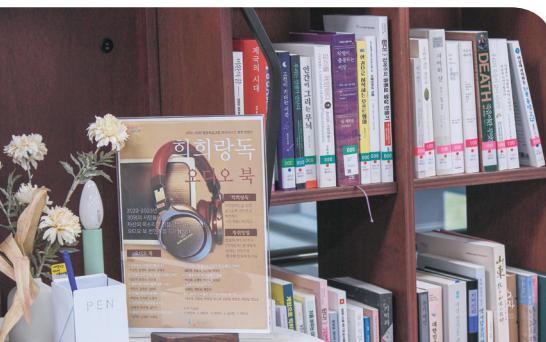
#시민자원활동가 #봉사활동 #아띠 #친구 #환대



모두의 책방

✓ 사업 배경

답답한 구도심 골목에서 ‘공공의 거실’이 되기로 한 모두의학교는 그 중심이 되는 공간 ‘모두의책방’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문을 열고 대출되지 않아도, 조용하지 않아도, 전문 사서가 아니어도 괜찮은 자유로운 공간. 때로는 거실 같고 때로는 서재 같은 곳으로 시민 개개인이 독서 취향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 사업 내용

9,000여권의 도서와 40여종의 간행물 구독, 다양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용객 누구나 문화적 감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읽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서가(book bar) 제도를 운영하며 수시로 독서 모임과 토론 활동

공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민이 북큐레이터가 되어 개인의 취향을 살린 책 선택과 전시가 가능한 ‘공공의 서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시사점

지난 5년간 수집된 자료들의 양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 자료검색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2023년에는 장서 등록 관리 및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모두의책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스터디존, 프로그램존, 독서존 등 목적으로 공간을 분리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 사업 키워드

#공공의 서재 #모두의책수다

#시민북큐레이터



모두의학교 사업 의미와 차별점

모두의학교가 지닌 평생학습적 의미와 현장에서 모두의학교의 역할

신민선(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교육에 세상의 가치를 담다

“세상이 품고 있는 가치를 교육에 담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요구했다.” 2019년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에 대한 글을 요청 받고,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세상을 이끄는 낯선 발상’이라는 주제였는데, ‘모두의 학교’가 드러내는 낯선 색깔에 벽차오르는 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문장이었다. 신기한 것은 4년 전 가졌던 느낌이 지금 2023년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모두의학교’가 매년 발행하는 『마스터 프로세스』를 읽다 보면, 기관의 백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담되 무겁지 않다. 또한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낯선 시도가 오히려 눈길을 머물게 한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모두의학교’에서 발행하는 『마스터 프로세스』를 읽으며 내용의 실험적 행보에 부러움의 시선을 던졌다며, 당신은 분명 진 것임에 틀림없다.

‘참여와 전환의 힘’,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다

‘모두의학교’가 남과 다른 혁신 브리프라는 사실은 여려 측면에서 쉽게 발견된다. ‘모두의학교’는 설계 과정부터 남달라서 평생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통상 건물 설계는 담당자와 건축가의 몫이며, 시민은 그저 사용자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모두의학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공간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한 과정을 선택했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담았고,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의 ‘모두의학교’가 탄생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면 이런저런 목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두의학교’는 지난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견뎌냈고, 시민들의 참여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과정의 의미를 살려냈다.



‘새로 배움’, ‘서로 배움’…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전환

‘모두의학교’가 문을 열면서 강조한 ‘새로 배움’, ‘서로 배움’의 가치는 2000년 이후부터 부쩍 늘어난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 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철학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평생학습 역시 학교교육의 경계를 넘겠다고는 했지만, 그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수직적 가르침에 익숙했던 평생학습관은 ‘모두의학교’를 통해 안드라고지의

교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교수자와 학습자의 이분적 구조가 존재하는 평생학습 현장에서 두 주체 간의 평등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했고 또 균형적 사고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브라질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경계했던 학습 공간에서 나타나는 교수자의 독점적 권한도 ‘모두의학교’ 운영 철학을 통해 ‘서로 배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다. 거창한 것만이 혁신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것의 재배열이라는 ‘모두의학교’의 실험 정신은 결국 혁신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다.

‘정답과 오답이 없는’ 평가시스템, “한 끗” 차이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모두의학교’가 지향하는 정답과 오답이 없는 평생학습 평가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성과란 자극히 숫자로 파악하는데, 주로 프로그램과 참여자의 숫자 그리고 참여자의 만족도 수치가 대부분인 것에 비해 ‘모두의학교’는 그 외 사회에 가치를 더해 확산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또한 평생학습의 교육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방적 제공자가 되어서는 절대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의학교’는 영악하게 알고 있는 듯하다. 시민자원활동가 ‘모두

아띠’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젝트,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등 파트너 및 프로젝트 개발 등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고, ‘모두의 양상블’ 및 커뮤니티 ‘징검다리’ 프로젝트 개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와 ‘모두의 에너지 학교’ 그리고 ‘모두나누장’ 등 프로젝트 실행, ‘함성육아’ 및 ‘나무’ 프로젝트 등 커뮤니티 연계, ‘청춘밸딩’ 및 ‘팝랩서울’ 등 협력 기관과의 연계, 공공의 거실 운영 등 ‘모두의학교’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성격을 해마다 달리하면서 기존 평생학습관의 성과관리 측면에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반려견의 아지트’가 눈에 띠는데, 동네 고양이 50마리도 2019년 평가에 포함한 점이다. 바로 ‘한 끗’ 차이의 ‘다름’이다.

학습의 다양성, 함께하는 의미와 가치 강조

‘모두의학교’는 공간이 주는 암묵적 메시지에 집중했다. “학습은 사각의 공간, 사각 테이블, 사각 의자에서만 가능할까”라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학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 ‘모두의학교’에 들어서면 기존의 평생학습관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 우선, 거대한 운동장인 ‘모두의 운동장’이 그 사실을 대변한다. 통상 운동장이라고 하면 덩그러니 놓여 있는 흙바닥이 연상되고, 간혹 주차 공간으로 변모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학교’ 운동장은 그야말로 ‘모두의 운동장’이다. 전 세대가 어울려 놀이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장의 신개념을 접목한 학습 공간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운동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알록달록한 색깔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두 번째는 놀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놀란다. 세 번째는 운동장 소재가 모두 폐자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라는 것이다. 지구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적 감수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학습 공간으로서 멋진 변모를 뽐내는 운동장을 지나면 ‘모두의학교’ 건물 전체가 뿐만 아니라 우주에 다시 놀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책도 읽고

사색하는 공간으로서 ‘모두의책방’은 학습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절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공유 공간으로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다. 기존의 책방은 침묵의 공간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리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함께하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모두의학교’는 ‘음악회’, ‘문학북토크’, ‘가족 뮤지컬’, ‘모두나누장’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이 건물内外부에서 전개되면서 저마다 학습의



의미를 전달하느라 바쁘다. ‘모두의학교’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공유 공간이 탄생하기까지 공간 철학에 관한 시민들과의 논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시민들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시민 학습은 물론 ‘상생과 공존’의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 평생학습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살아가면서 부대끼며, 눈으로 보고 배우며 또 말하는 것이 모두 학습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곳이 바로 ‘모두의학교’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 한 끗이여 영원하라!

이제 ‘모두의학교’는 또 다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자리에 서 있다. 기존의 환호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며, 새로운 실험에 주저하지 않는 도전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동안 ‘모두의학교’는 무척 유명해졌다. ‘모두의학교’를 방문한 기관과 관계자가 지난 6년간 611개 기관, 2,202명에 이른다. 이제 ‘모두의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더 깊어

졌다. 예전에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호기심 있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내는 애정의 눈빛이 강하다. 지금껏 평생학습에도 실험이 있다는 멋진 사례를 보여 줬듯, 앞으로도 과감한 도전을 계속 이어 가기를 바란다. 평생학습 참여자 수, 만족도 수치, 취업률 파악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과에 ‘모두의학교’가 지향하는 무한한 상상을 끼워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 2019년에 ‘모두의학교’에서 발행한 『마스터 프로세스』의 프롤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 ‘모두의학교’의 실험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거창한 성취만이 혁신은 아니다. 모두의학교는 이미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혁신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이번 『마스터 프로세스』의 제목이 ‘혁신 브리프’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두의학교는 우리가 한발 먼저 시도해 본 이 실험 사례들이, 앞으로의 평생학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공공 기관과 지자체 등 더 많은 교육 현장에 가 달길 바란다. 혁신적인 평생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한복판에서 모두의학교는 하나의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로서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학교’의 실험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실험은 언제든 실패가 있어야 실험의 가치가 있듯, 실패를 존중하는 ‘모두의학교’가 한국 사회에 우뚝 서기를 바란다. 한 끗이여, 영원하라!

모두의학교 사업 의미와 차별점

모두의학교가 지닌 장점 및 차별점

박현규(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센터장)

“차별 없는 새로운 학문!”
‘모두의학교’, ‘혁신적인 평생 학습’의 모태

‘모두’… 이름부터 ‘차별화’

“새로 배움, 서로 배움”

지난 2018년, ‘모두의학교’는 평범함을 지양하고 또 혁신적인 평생학습 모델을 지향하며 시민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모두의



학교’라는 이름부터 차별화를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두의학교’에서 ‘모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반드시 ‘모두’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뻔한(?) ‘학교’라는 용어는 왜 사용한 것일까? 긍정적인 의구심을 품어 본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몇몇 오해와 진실 속에서 새로운 평생교육의 길을 걸어온 ‘모두의학교’를 들여다보고, 장점 또는 차별점을 점검해 본다. 그 차별점의 키워드는 바로 관점, 방법, 커뮤니티, 공간 등이다.

관점의 차이를 담다

지난 6년간 ‘모두의학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용어는 바로 ‘관점’이다. 관점의 차이를 담는다는 것은 자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차이를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동안 ‘모두의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방법,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 평가 등과 관련해 접근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관점의 차이를 잘 담아낸 덕분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파트너로서 시민자원활동가를 조직화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의학교’가 담았던 관점의 차이는 단순히 교육 또는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다.



방법의 차이를 봄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내용을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다. ‘모두의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교수법 등과 관련해 방법의 혁신성을 깊이 있게 고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선, 기존의 기획자 또는 교강사가 설계·운영했던 프로그램 방식을 참여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프로

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촉진자를 연결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학습하는 ‘모두툴킷 워크숍’을 통해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교수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모두의학교’는 ‘평생교육의 하우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했다. 또한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 실수를 주제로 한 ‘모두의학교’만의 성과공유회인 ‘실수대첩’,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둔 성과보고서인 『모두의학교 마스터 프로세스』 발간, 셋째, 대부분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적용했던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네이밍 등은 ‘모두의학교’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두의학교’가 새로이 봄었던 방법의 차이는 시민이 학습의 수혜자에서 주체자가 되는 경험을 궁극적으로 제공했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커뮤니티의 차이를 품다

평생학습에서는 시민이 한 명의 학습자로서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모두의학교’에서는 시민이 일반적인 개인 학습자에만



‘모두아띠(시민활동자원가)’, ‘시민 커뮤니티 학교’ 등이다. 그들은 ‘모두의학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공간의 운영·관리, 성과관리 그리고 홍보 및 자원 발굴 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 커뮤니티는 ‘모두의학교’의 시민 파트너를 넘어 지역사회 시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모두의학교’가 품어 왔던 커뮤니티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음의 품으로 다가갈 것이다.

공간의 차이를 넘다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 교강사, 학습자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간이다. 공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평생학습의 기획, 과정 및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모두의학교’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접근했지만, 기존의 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터라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학교’는 해야 할 일들과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최상의 조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왔다. 즉, 제한된 공간의 한계에 부딪혀 실망하기보다 개성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해 왔다.

그 결과, ‘모두의학교’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공공 거실로서의 ‘모두의책방’, 문화가 깃든 ‘모두공연장’, 2023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머물지 않고, ‘모두의학교’의 시민 파트너로 성장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직해 운영했다.

커뮤니티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학습이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키워 주고, 학습 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의학교’를 운영하는 데 건강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의학교’의 시민 파트너로서 대표적인 커뮤니티가 바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민관협력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모두의운동장’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는 벤치마킹 투어를 하며, ‘모두의학교’의 사업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모두의학교’에서 “공간의 차이를 넘는다”는 것은 장소로서의 공간을 넘어 ‘모두의학교’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혁신의 꿈, 공동체의 실현”

‘모두의학교’의 지난 6년은 향후 60년을 향해 나아가고 또 다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디딤돌 이었다. 앞으로 ‘모두의학교’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시민과 커뮤니티 그리고 더욱 혁신적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시도해 볼 일들에 대해 무한한 기대를 해본다.

‘모두의학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두의학교’만의 차별화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모두의학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혁신적 평생학습 모델로서 창작소, 공작소 그리고 실험소의 역할을 펼쳐 나가기를 응원한다. 그리고 ‘모두의학교’의 과거와 현재고, 이제 미래가 될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모두의학교야! 괜찮다면 지구 너머 화성으로도 와 줄래?



part

2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두의학교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커뮤니티의 힘: 성장 스토리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변화 스토리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웃음과 눈물로 ‘마음의 문’을 열다

김준수(주인공학교 강사)

자기소개 해주세요.

음악과 생각이 내 안으로 흘러

저는 뮤지션이자 문화예술교육가로서 몬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김준수입니다. 2003년부터 음악과 생각이 있는 곳에서 평생학습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덕분에 얼마 전에는 「장르는 여름밤」이라는 음악 앨범과 에세이를 발표했어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청소년들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에 스며들다

2019년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인공학교’와는 인연이 참 깊어요. 그리고 보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5년 동안 많은 청소년을 만나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학생들을 만나면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공감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짓던 순간들

‘모두의학교’가 주는 공간적인 유쾌함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다 보니 참여한 학생들이 음악적인 발견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친구들과 우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매우 흐뭇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며, 때로는 기뻐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눈물을 짓기도 하더군요.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많이 떠오르고는 해요.

학생들을 만나면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나요?

‘나’ 그리고 ‘너’의 이야기…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음악이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삶에서도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번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일을 떠올리며 또 그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정리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만들고 나니, 이제는 짹사랑을 향한 미련이 없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리며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묘하게도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쉼’을 느꼈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처럼 ‘나만의 이야기’가 ‘친구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느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정말이지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에요. ‘주인공학교’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야기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주었다는 데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반응과 변화가 있었나요?

“다정함만이 냉소를 이길 수 있다!”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선 표정이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이곳은 안전하고 또 재미있는 공간이구나”, “내 이야기와 목소리를 내도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는 거 같아요. 어쩌면 자신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 보는 가슴 벅찬 순간인지도 모르죠.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



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 하지만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를 단정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수업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이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자 변화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 역시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며 ‘음악의 힘’을 더욱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타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다정함만이 냉소를 이길 수 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며 이 말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학생들과 음악을 만드는 특별한 평생학습

학생들과 음악 작업을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제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주인공학교’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매 학기 참여했는데, 지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다니까요.

‘주인공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에 음악적 성향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음악 작업을 지지했어요. 그 순간들이 무척 유쾌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나에게 OOO이다.”

수평적이고, 다양한 색이 존재하는 평생학습 공간

‘모두의학교’는 수평적이고, 다양한 색이 존재하는 평생학습 공간입니다. 지금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오래된 물건에 깃든 이야기, 그곳에 귀 기울이고파

저는 오래된 물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새로 사기보다는 옛 물건에 끌리는 편이죠. 물건에 깃든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모으고, 수리하는 작업을 점점 더 즐기고 있어요. 주로 1980~2000년대 소품과 악기, 전자 제품을 모으고 또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깔끔하고 귀여운 골동품 속을 여는 거예요. 이제는 골동품에게도 귀를 기울여 그곳에 깃든 이야기도 들어보려고요.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청년 독립러’를 위한 끝나지 않는 여정

이나경(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 기획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로배움’, ‘모두툴킷’… 평생학습의 신세계 성공회대학교를 졸업한이나경입니다.

저는 생태환경, 도시문화, 평등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학교에서 평생교육학을 공부 때 복수전공인 사회학에서 배운 다양한 사회문제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습에 많이 적용해 보고자 노력했어요. ‘모두의학교’에서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두의학교’가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청년 독립러’는 바로, ‘내 모습’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는 제가 배우고 싶어서 기획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제게 ‘집은 어떻게 구하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무도 알려 주지 않은 거예요. ‘청년 독립러’는 바로 제 모습이거든요. 또한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친구, 취업을 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은 채 임금마저 체불하는 탓에 퇴사한 친구… 제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처럼 다양한 문제(주거 불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에 대처할 역량이 청년들의 삶에서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떠한 점이 재미있고 또 인상 깊었나요?

“나 혼자만 막막한 게 아니구나”… ‘공감의 장’

총 3회차에 걸쳐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청년’의 범주가 대학생,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부모와의 동거인, 기숙사 생활인, 자취생 등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그분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의를 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며, 그분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청취했어요.

4~5명 정도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 시간에는 모두 둘러앉아 ‘집 구하기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공공임대, 사회적 주택 등의 알찬 정보를 각 개인에 맞게 세심히 알려 준 덕분에 마치 집단 상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막막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서로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나요?

평생학습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라다

첫 번째 ‘노동권 찾기’가 끝나고, 한 참여자가 “제가했던 일이 ‘가짜 3.3%’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참여자는 강사로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데,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결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사회 초년생이 피해를 쉽게 보는 문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참여자의 말을 듣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 순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어떤 반응과 변화가 있었나요?

문제 해결 능력, 청년 독립러의 핵심 ‘스킬’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라는 프로그램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참여자들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찾아와 “내용이 알차고, 많이 얻어 간다”라며 소감을 밝히더라고요. 또 다른 참여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주거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 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유관 기관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 어떤 정보를 얻는 것보다 청년 독립러에게 귀중한 ‘스킬’이 아닐까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나에게 OOO이다.” 그 이유도 함께 알려 주세요.

씨앗을 뿌린 땅에서 열매를 거두다

‘청년 독립러를 위한 노동·주거 권리 찾기’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과 기관 담당자,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아봐 준 덕분에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참여자들이 평소에 간직만 했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씨앗을 뿌린 땅을 여럿이 보살핀 덕분에 열매가 맺힌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의학교는 나에게 OO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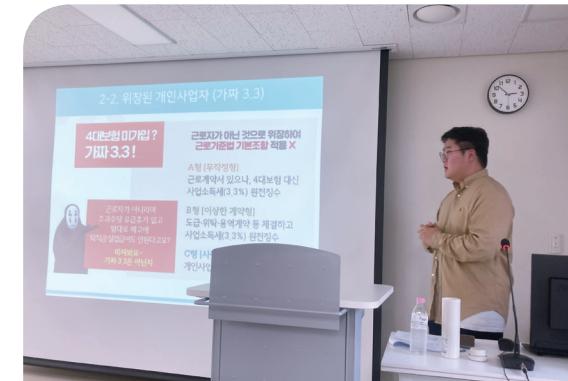
‘더 친해지고 싶은 배움터’, 모두의학교

제게 ‘모두의학교’는 ‘더 친해지고 싶은 배움터’예요. 이 평생학습 공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첫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모두나누장’을 지켜봤는데, 마을의 잔치처럼 흥겨워 보였어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모두의학교’를 알게 되고, 자주 참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고파

여행을 좋아하는데,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는 ‘모두의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금천구에 처음 가봤듯이, 내년에도 낯선 지역 그리고 따뜻한 동네로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달콤한 꿈, 정원디자이너의 길!

지유정(정원디자이너 민간자격증 과정 학습자)



자기소개 해 주세요.

'평생학습의 매력'에 빠져든 50대 주부

은평구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로서 평상시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모두의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매 학기에 1~2개의 평생학습 수업을 들으며,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자격증반의 유혹, 정원디자이너로의 꿈

봄학기에 양정현 선생님의 '정원' 수업을 즐겁게 들으며 유익한 부분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터라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던 중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더 길게 들을 수 있는 자격증반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험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식물을 예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원디자이너 민간자격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내용을 학습했나요?

숨겨진 정원, 각종 식물의 비밀을 풀다

'정원디자이너 민간자격증' 과정에 참여하며, 자료 화면과 책을 통해 세계의 유명한 정원들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정원의 구조, 디자인적 요소, 다양한 식물의 형태와 질감 등을 배웠죠. 또 이를 도면에 옮겨 그리는 법, 각 식물을 심는 방법과 관리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울러 서로 어울리는 식물과 어울려 자라기



힘든 식물에 관해서도 배우고, 정원을 꾸미는 부재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비롯해 실생활에서 여러 물건을 재활용해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정원디자이너의 시선,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배웠던 학습자들 모두 길을 걸을 때 가로수를 보면 "저건 관목이네", "저건 활엽수야", "저건 침엽수야"라며 배운 것을 복습했어요.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공원이나 식물원 등지로 다녀와도 "이름을 아는 식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며,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기에 바빴어요. 또 그동안 버스를 탈 때면 '언제 도착하나'라고 생각하며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는 했는데, 이제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아는 식물 종류를 찾아보는 맛에 끌 빠졌어요.

회열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팀워크의 미학, 현실로 빛나는 우리의 정원

3명의 조원이 협력해 이상형의 정원을 도면으로 그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시간에 잘 배웠더라도 평소에 해보지 않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를 축적으로 표현하고, 입체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에도 조원들과 여러 번 만나며 노력한 결과, 도면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서로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야외 농원에 가서 콘셉트에 맞게 식물들을 고르고, 조원들과 합심해서 '모두의학교' 내에 우리의 정원을 실제로 완성했어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도 예쁘게 찍은 뒤 현상해서 집에 걸어 놓았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자격증의 가치, 평생학습의 연속

저는 몸으로 움직이는 공부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자기 계발 차원에서 공부한 것이라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을 활용해 당장 취업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평생학습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모두의학교’에서 심화학습 과정을 개설해 준다면 더욱 좋겠네요.

“정원디자이너 민간자격증 과정은 나에게 000이다.”

평생학습의 새로운 차원, ‘힐링 나들이’

“정원디자이너 민간자격증과정은 제게 ‘나들이’다.”

전업주부로 30년 가까이 살면서 조금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런저런 공부나 운동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몸을 단단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취업을 위해, 자기 계발을 위해… 이처럼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이번 수업은 제게 ‘힐링 나들이’였어요.

“모두의학교는 나에게 000이다.”

좋은 친구처럼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는 제게 ‘활력소’이자 ‘희망’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재미있게 활동하는 곳이죠. 무엇보다 ‘모두의학교’를 꾸려 가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모두의학교’가 오래된 친구처럼 제 곁에 계속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목표를 향한 발걸음, 건강한 삶의 시작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의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발전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책을 체계적으로 읽고 싶어요. 아울러 딸과 같이 운동을 쭉 이어갈 생각이고, 기회가 되면 봄에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배움의 길: 참여 스토리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아젠 7학년 1반 “액티브 시니어!”

박영순(7학년 교실 학습자)

자기소개 해 주세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



농산물을 팔아 얻은 기금은 불우이웃을 돋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회원들이 매년 모여 김장을 해서 쌀과 함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답니다.

모두의학교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남편에서 아내로 이어진 가슴 벅찬 평생학습 여정

2018년 ‘꽃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두의학교’를 처음 알게 됐어요. 남편은 학교에 간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모두의학교’에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도 한번 가 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2019년 봄학기부터 모두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남편에서 아내로 이어진 가슴 벅찬 평생학습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배웠나요?

보드게임, 세상과 소통하다

그림과 체육 그리고 보드게임 학습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보드게임 학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결국 보드게임기를 구입해서 심심할 때마다 즐기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랑

보드게임을 해서 저녁 내기도 해요. 어디 그분이겠어요? 손주들과도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7학년 교실을 통해 배운 보드게임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두통도 날려 버린 가을 소풍, 다시 젊어진 기분

지난가을에 다녀왔던 소풍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두통이 있었는데,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소풍을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픈 것도 참고 서울대공원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코끼리열차를 타며 시원한 공기를 마시니까 코가 확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통이 말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7학년 1반 학생들과 같이 떠난 가을 소풍에서 재미있게 놀다 보니, 아픈 게 다 나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처럼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모든 게 새롭기만 하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라고 질문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무척 좋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어요? 게다가 선생님은 서울대공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터라 구석구석 소개해 주더군요. 잠시 쉬며 김밥도 먹었는데, 어릴 적에 소풍 갔던 기억도 떠오르며,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참여한 후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뜻밖의 인연, 자신감을 키우다

‘7학년 교실’에 참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첫 수업에서 ‘나의 인생 중 언제가 가장 좋았는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서른둘에 집을 처음으로 샀을 때가 가장 좋았더라고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동네 어르신들 다 불러 놓고, 팥죽을 나눠 주면서 마당에서 춤을 춤거든요. 저 역시 눈물이 나도록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모두의학교’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결국 포기해 버렸어요. 남편에게도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그까짓 거 가지 맙시다.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맙시다. 여태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 7학년 교실 같은 학생인 양승우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친오빠처럼 제게 참 잘 대해 주었어요.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면서 계속 오라고 설득하더군요. 자신의 그림까지 직접 가져와 보여 주며 저를 설득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면 된다는데, 그까짓 거 못 할까? 여보, 우리 ‘모두의학교’에 나갑시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장독이 있는 우리집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그렸다”며 다들 칭찬해 주더군요. 그 순간 으쓱하며, 자신감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로 써보고, 이런저런 걸 많이 도전하게 됐죠. 그렇게 제가 지금의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나요?

포용하는 삶,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다

딸이 없는 저로서는 며느리들이 정말 좋아요. 저희 부부에게 무척 잘하는 터라 더욱 고맙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며느리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요. ‘7학년 교실’에 참여하며 마음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나 할까요. 이젠 남편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남편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이것저것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만큼 포용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다 보니, 요즘은 ‘모두의학교’에서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더 찾아보게 돼요. 마음의 문을 더 열고, 누구나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7학년 교실 참여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어우러짐, 서로 부족함을 채워 가는 것

‘7학년 교실’이 끝난 뒤에는 ‘7학년 언니 오빠들’이라는 이름으로 음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자 10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된 음식 커뮤니티예요. 구성원들이 제각각 제철에 맞는 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집에 있는 재료들을 조금 가져와 요리해서 나눠 먹거든요. 지난 가을에는 호박죽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감님들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개성만두의 비밀 레시피도 알려 주며 손맛을 전수해 주었답니다.

‘7학년 언니 오빠들’ 커뮤니티의 리더는 양승우



선생님인데 정말이지 모르는 게 없어요. 재료에 대한 건강 상식도 하나하나 다 알려 주는데, 재료도 직접 준비해서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 덕분에 구성원들은 배경지식이 다양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우러지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 주며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7학년 교실은 나에게 1000이다.”

배움 그리고 어울림, 그 맛이 참 달다!

“7학년 교실은 나에게 멜론이다.”

과일로 표현하자면 멜론으로 표현할게요. 저는 멜론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모두의학교’에서 평생학습의 모든 과정이 정말 좋아요. 또 여럿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무척 좋아서 멜론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세상을 품어 보고 싶어요!”

게이트볼을 배워 보고 싶어요. 또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음식 등을 배우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계문화교실’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모두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스위스와 관련된 수업 시간에 푸딩도 만들어 먹었어요. 무척 맛있더라고요. 그 수업을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커뮤니티의 힘: 성장 스토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으로의 전환”

황혜선 외(페우 커뮤니티 리더)

자기소개 해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환경 스터디를 시작하다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앙트러프러너십과 글로벌환경학을 전공하고 하는 학생으로, 페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황혜선입니다. CSR 수업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점을 발견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 공부를 시작하다가 마음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2020년에 환경 스터디 모임을 개설한 이후 환경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환경 가치 ‘FOR EARTH, WITH US’의 시작

2021년 10월, 환경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된 ‘페우(FEWU)’는 ‘FOR EARTH, WITH US’라는 가치를 담아 활동하고 있어요. ‘페우’는 2022년 시민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스터디 모임을 커뮤니티로 확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페우’의 멤버가 직접 제작한 워크북을 가지고 「지구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시민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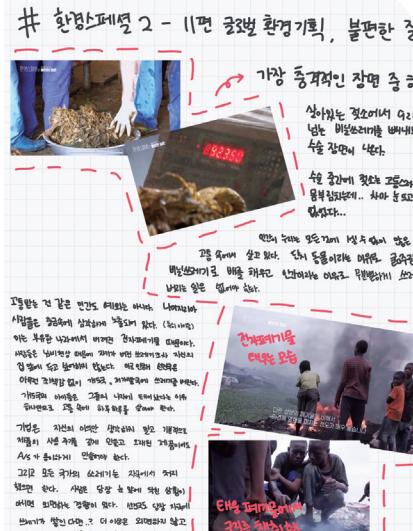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구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평생학습으로 목표 달성

‘모두의학교’ 시민 커뮤니티 사업인 ‘페우’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페우’의 멤버가 공부

하고 있던 환경과 환경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직접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더욱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 플로깅, 바느질 워크숍, 용기내 챌린지, 제로웨이스트숍 방문, 비건 맛집 탐방, 비건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어떠한 점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나요?

환경문제, 다양한 시각과 사고의 전환

'페우' 프로젝트에 참여해 활동하며 팀원 개개인의 성장은 물론 '페우'의 성장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기후 위기를 주제로 웹툰을 만든 작가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세상이 바뀌긴 하나요?” 그러자 웹툰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인상 깊은 답변이었어요.

활동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

'페우' 프로젝트에 참여해 활동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덕분에 이산화탄소를 585kg이나 줄일 수 있었어요. 이는 소나무 138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거든요. 또한 고체 로션, 고체 샴푸바, 고체 컨디셔너를 사용함으로써 20개의 플라스틱 통을 줄일 수 있었고요. 더욱이 10명의 참여자가 총 428회 활동을 인증했다는 값진 결과도 얻을 수 있었어요. '페우' 프로젝트를 계기로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지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90일간의 활동, 평생학습의 성과와 자부심

'페우' 프로젝트를 무사히 잘 끝낸 순간 희열을 느꼈어요. 그동안 3명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강한 희열을 느꼈어요. 특히 90일간 이산화탄소를 총 585.0916kg 감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무척 기뻤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90일간의 활동이 평생학습의 성과와 자부심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페우'의 팀원들은 모두 전율을 느꼈거든요.

활동한 팀원들과 구성원들은 일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

2022년이 '페우'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다면, 2023년은 '페우'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하는 시간이었어요. 팀원들 개인이 환경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기도 했고, 그것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외출 할 때 텀블러를 꼭 챙기게 된 것이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페우' 프로젝트에 참여해 활동했던 구성원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환경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등 각자의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어요.

활동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성공적인 활동

'페우' 프로젝트는 90일간 진행되는 장기간 활동이다 보니, 이탈자도 생기는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주해 준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활동이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인원도 힘을 합치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열심히 참여해 준 시민들 덕분에 '페우'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활동을 마감해 최우수 활동 커뮤니티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폐우 프로젝트는 나에게 000이다.”

‘폐우’ 프로젝트는 삶의 ‘일상’, ‘원동력’, ‘방향성’

‘폐우’ 프로젝트는 저희에게 ‘일상’이고, ‘원동력’이자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폐우를 운영하며 저희의 일상을 비롯해 삶의 원동력과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환경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다른 환경 프로그램에도 조금 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환경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폐우’ 프로젝트에 참여해 활동하며 이를 확립할 수 있었거든요.

“모두의학교는 나에게 000이다.” 또 앞으로 어떤 곳으로 자리 잡으면 좋을까요?

상상을 현실로, ‘폐우’의 성공 스토리

‘폐우’ 프로젝트 활동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에요. 2년간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저희는 물론 커뮤니티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요. 상상만 했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최소한의 것’ 가치 아래 ‘느슨한 연대’ 기획

‘폐우’만의 색깔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최소한의 것을 노력하자”라는 ‘폐우’의 가치관 아래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또한 저희 팀원들은 전 세계의 환경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설계해 운영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환경 분야별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다른 환경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해 활동하려고 해요.



커뮤니티의 힘: 성장 스토리

‘소통의 미학’, ‘모두의연극’이 그리는 특별한 공동체

이재만(모두의연극 커뮤니티 리더)

자기소개 해주세요.

평생학습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다

모두의연극 프로젝트 팀(가침 모두의연극 P, 모연) 대표 이재만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모두의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연기를 시작한 배우예요. TV에서 한 배우의 뛰어난 연기를 보면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모두의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면서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담겨 있던 열망 같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직장인 연극반 활동과 함께 ‘모두의학교’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극단의 대표 역할도 하는 다방면의 연기인이 되어 가고 있네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커뮤니티 참여율 100%, 평생학습이 이끄는 특별한 변화”

2022년 여름, ‘모두의학교’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기를 가르쳐 주고, 약 두 달간 준비해 공연을 올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고이 감춰 두었던 연기에 대한 작은 열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후 ‘모두의학교’에서 시민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만이 아닌, 노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높은 뜻을 지향하게 되었어요. 연극을 통해 평생학습이 이끄는 특별한 변화를 주도하고 싶었어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다양성과 도전, 모두의연극 프로젝트 팀의 증편 공연”

‘모두의학교 여려가지홀’에서 올 상반기 에 2회, 하반기에 3회에 이르는 공연을 진행했어요. 상반기 공연은 기존에 있던



단편 작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고, 하반기 공연은 순수 창작극으로서 ‘모두의연극 프로젝트 팀’의 도전적인 첫 중편 공연이었어요.

2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배우들과 함께 노력해서 얻은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공연 포스터 제작이나 홍보, 무대 설치 등 모든 활동을 저희가 직접 진행했어요.



어떠한 점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나요?

‘고구마 연기’로 피어난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 어느 날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여배우 한 분이 고구마를 미처 다 먹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고구마를 다 먹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자, 바로 연습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습을 시작했어요. 당황했던 그분이 입속에 있던 고구마를 삼키지 못한 채 연습에

임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이 메는 연기를 하더군요. 슬픈 내용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고구마로 인해 처절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감정 제대로 사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 연기 중 최고다. 고구마를 아예 공연에 넣어? 앞으로 슬픈 연기할 때는 고구마 들고 다녀”라며 놀렸던 기억이 있네요.

관람한 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반전과 감동, 관객을 사로잡은 ‘모두의연극 프로젝트’

하반기 공연은 연출을 담당했던 분의 순수 창작극이었고, 저희도 처음 도전하는 중편 공연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연이 반전으로 흐르자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슬픔에 젖어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관객 중 한 분은 “무료로 보기 진짜 미안할 정도의 연극”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제야 이번 작품이 대성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도전에 따른 불안이 성공의 환호로 보답받은 중편 공연의 뜨거운 순간을 맛보고 말았답니다.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가족 여행? 공연?” 열정 가득한 선택의 순간

하반기 공연을 준비할 때였어요.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은 배우 한 분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공연이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가족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공연을 못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공연은 같이하시죠. 여행 전에 충분히 연습해 주실 거잖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여행을 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행하면서도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 연습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공연 때 무척이나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여행 기간은 공연일 다음까지 이어지는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만 가족들 보다 먼저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희열을 짜릿하게 느꼈던 순간이에요.

일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에서 시작된 ‘찐’배우의 길

‘모두의연극’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배우’라는 부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모두의학교 커뮤니티였구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번 주말에 연습 안 해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올해 마지막 공연인데, 열심히 해야죠”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이렇게 우리 모두 ‘찐’배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연극 프로젝트는 나에게 OOO이다.”

일상 속 ‘생활’, 진정한 삶의 향기를 느끼다

‘모두의연극’ 프로젝트는 제게 ‘생활’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연을 더 열심히 준비한 거 같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울 때가 더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희열도 느끼고… 그런 게 바로 ‘생활’이 아닐까요? 생활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번 활동은 제게 진정한 삶의 향기를 느끼게 해준 ‘생활’이었어요.



“모두의학교는 나에게 OOO이다.”

또 앞으로 어떤 곳으로 자리 잡으면 좋을까요?

평생학습 활동 공간, forever!

‘모두의학교’는 저를 바꿔 준 ‘평생학습 공간’입니다. 제게 새로운 자아를 부여해 준 ‘활동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시작은 연극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프로그램이었죠. 아마도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겠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두의학교’ 입장에서도 연극은 큰 모험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모험과 도전, 즉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활동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모연’, 무대 뒤에서 시작된 평생학습의 여정

연극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중 배우를 모집해 커뮤니티를 더욱 확대하고, 각 지역 및 양로원·보육원 등을 방문해 연극 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이제 2년차에 접어드네요. 연극인으로서 제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배우 혹은 스텝으로서의 삶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저도 작품을 써서 직접 연출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 길에 ‘모연’은 늘 함께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연’은 무대 뒤에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변화 스토리

세대를 넘어 꽂피우는 ‘모두카페’의 새로운 변화

김부순(모두카페 모두아띠)

자기소개 해 주세요.

“시민자원활동가로 빛나는 모두아띠의 행보”

저는 ‘모두의학교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로서 ‘모두카페’에서 활동하며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김부순입니다. 2003~2021년까지 구립 청소년독서실에서 총무로 시작해 관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총 18년간 근무했어요. 퇴직한 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금천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지원사업



중에서 청소년 시설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자원활동가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퇴직 후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청소년지원시설사업’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 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원해서 금천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지원사업의 청소년 시설 지원 업무를 수행했어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 봉사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활동하기 전에는 어떤 봉사활동을 했나요?

봉사활동의 기쁨을 처음 맛보다

‘모두카페’에서 모두아띠로 활동하기 전에는 별다른 봉사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인지 봉사활동의 기쁨을 누구보다 더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친절한 미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고, 나이도 있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모두카페’에 오시는 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 다른 분들보다 수월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르신들이 공간 활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두카페’에 방문하면 방명록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을 무시하며, 언성을 높이시기도 했다니까요. 그러한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방명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많은 분이 ‘모두카페’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휴식’과 ‘취미’의 만남~ ‘모두카페’의 즐거운 변화

‘모두카페’에서 오후 1~4시까지 하루 3시간씩, 주 5일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편하게 앉아 쉬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던 중 이분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즐기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은 뜨개질, 화요일은 디퓨저 만들기와 향 체험, 목요일은 캘리그래피, 금요일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떠한 점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나요?

어르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순간

‘모두카페’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운영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재미있고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뜨개질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뜨개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뜨개질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빅백’ 등의 방법을 전수하는 활동을 했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뜨개질을 열심히 배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을 잊을 수 없어요. 어르신의 손끝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순간이 가장 인상 깊네요.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비늘과 실의 만남, “나눔의 기적”

지난 11월, ‘모두의학교’에서 ‘모두나누장’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아띠들과 함께 “모두카페”에서의 활동을 결실로 맺어 보자!”라며 결의를 다졌어요. 7월부터 뜨개질을 시작해 ‘모두나누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핸드폰 가방 30개, 수세미 100개를 모두 완성했어요. 그리고 ‘모두나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다들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배움의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비늘과 실로 나눔의 기적을 이루어 낸 거잖아요.

어대한 변화가 있었나요?

“세대 간 교류의 장”, ‘모두카페’의 다양한 이야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모두카페’에 모여 어우러지는 모습이 무척 예쁘게 보였어요. ‘모두카페’는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더욱이 ‘모두의운동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중고등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모두 살아 숨 쉬는 기분이고, 마치 저까지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더 단정하게 옷도 입고 또 귀고리도 하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모두아띠 활동은 나에게OOOO이다.”

은퇴 후에도 에너지를 내뿜는 ‘마중물’

‘모두아띠’ 활동은 제게 “은퇴 후 고갈될 뻔한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 주는 펌프의 마중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움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모두의학교” 버스를 타면 이런 광고가 나와요. 정말이지, ‘모두의학교’는 “배움을 통해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역량교육은 ‘성장의 길’

여러 ‘모두아띠’와 함께 참여했던 역량교육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관련 교육을 더 받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이 역량교육을 더 열어 주더군요. 그 덕분에 전문가로부터 컴퓨터 만들기 수업을 직접 배울 수 있었는데, 역량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모두아띠’의 의견이 수렴되고, 힐링도 되고 또 시민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역량이 향상된 거잖아요. 1석 3조의 역량강화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모두아띠’ 역량교육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새로운 취미 발견, 예술로의 여정

‘서양화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학교에 다닐 때 어느 정도 배웠지만, 유화 그리는 법이나 붓칠하는 법 등 기본적인 교육이 포함된 서양화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또 기타 연주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기타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타를 배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저만의 예술로의 여정이 곧 시작될 거예요.

※ ‘모두아띠’란 ‘모두의학교’ 시민자원활동가의 공식 명칭입니다.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변화 스토리

‘모두의 책방’에 뿌리내린 희망의 씨앗

김효순(모두의책방 모두아띠)

자기소개 해 주세요.

공부와 운동, 균형 잡힌 일상

저는 ‘모두의학교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로서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효순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 교실인 탁구를 배우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7학년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활동하게 되었나요?

거절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찾다

일흔 살이 되도록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더 먹다 보니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 지더군요. 저는 아직 건강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마음이 너무 상하더군요.

그러던 중 아들이 ‘모두의학교’를 알려 줬어요. ‘7학년 교실’에 다니면서 학교 곳곳에 놓인 책자나 프로그램북도 봤어요. 또 만 보 걷기

운동을 할 때 ‘모두의학교’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봤어요. 그것들은 모두 ‘모두의학교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에 관한 정보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모두의학교’에 ‘모두아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자료들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해 보관하고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모두아띠’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절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예요.

활동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일 vs 가정, 균형을 찾은 타이피스트의 일상

20대에는 타이피스트로 일했어요. 영문이나 한글 타이핑 모두 1급이었고, 글씨도 잘 쓰는 편이어서 그 일을 쭉 했어요. 당시 여자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결혼 후에는 가정을 돌보았었죠.

활동하기 전에는 어떤 봉사활동을 했나요?

‘모두의학교의 문을 열다’, 봉사의 시작

‘모두아띠’로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독산동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모두의학교’는 올해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의학교’가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책방에서 책만 조금 보다 가고 그랬어요. 가끔 행사 같은 거 하면 한 번씩 와서 잠깐 관람하고 가고요. ‘모두의학교’ 문을 두드린 것이 제 봉사활동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책의 공간을 꾸미다

‘모두의학교 모두아띠’로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서가 정리 및 방문객 맞이하기와 같은 책방 관리를 해요. ‘모두의책방’에서는 필요한 책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신청한 책은 다음 달에 구매하게 돼요. 이런 걸 시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해요.

또 ‘모두의책방’이 운영되는 규칙이나 시민들이 지켜야 할 점이 있으면 그걸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의책방’에 관심을 갖고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꽃꽂이 같은 것을 하기도 해요. ‘모두의학교’에 있는 꽃을 활용해서 책방을 꾸미는 거죠.

어떠한 점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나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끝나지 않은 고민

재미있거나 인상 깊은 이야기기보다는 ‘모두아띠’로서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고민 하나를 꺼내 보고자 해요.

시민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할 때 고민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잔잔히 흐르는 음악을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책방은 도서관이나 독서실과는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약간의 소음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 공간이 편안하고 좋은데, 간혹 음악을 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방의 원래 목적과 시민들의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소소한 일상에 녹아든 큰 기쁨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오셔서 책을 찾아 읽는 걸 볼 때 가장 기뻐요. 그렇게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무척 좋아요. 저희 집과 ‘모두의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가슴 설레게 하잖아요. 더욱이 ‘모두의책방’이 저를 언제나 반겨 주고, 이곳에서 제가 ‘나’라는 독립체로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활동의 기쁨, 책과 더 가까이…

‘모두아띠’로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다른 봉사활동은 또 없는지, 열심히 찾아보게 돼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도 ‘모두의학교 모두아띠’로 ‘모두의책방’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며 책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책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모두아띠 활동은 나에게OOO이다.”

‘모두아띠’의 역량과 다양성,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모두아띠’는 양파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속내를 알면 알수록 더욱 새롭게 느껴져요. 특히 ‘모두아띠’에게 주어지는 역량강화교육을 받을 때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두아띠’의 역량과 다양성은 정말 이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답니다.



‘모두의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영원한 친구, 모두의 학교

‘모두의학교’는 제 영원한 친구예요.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정말 차분해서 제 마음도 편해져요. ‘모두의책방’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모두의학교 나누장’ 행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안 쓰는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눔을 통해 제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어요.

2024년에는 무엇을 배우며 새롭게 도전하고 싶나요?

다양한 경험으로 더 풍성해진 나의 일상

이제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애써 온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의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해 활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목도리나 가방 뜨기도 재미있었어요.

‘7학년 교실’에서 배운 라인댄스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하고 싶더라고요. ‘7학년 교실’ 외에 별도로 라인댄스 수업이 생기다면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 제 일상과 마주하고 싶거든요.

모두의학교 운영진 소회



모두의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2023년



이은주팀장



일 년 동안 함께했던 모두의학교는 배움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기뻐하고, 모두아띠는 방문하는 시민 및 활동 아띠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다양한 주체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갔습니다. 모두의학교 구성원 모두를 배움의 주체로 만드는 요소들이 모두의학교의 매력이자 의미, 현재의

모두의학교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설렘과 성장 가능성이 가득한 모두의학교, 내년에는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배움으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질지 기대해봅니다.



최수희대리

2018년도에도 근무했던 모두의학교를 2023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모두의학교에 들어섰을 때 봄날의 햇살같은 미소로 저를 환하게 맞아주던 팀원들과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 모두의학교 정원에 삽으로 땅 파서 툴립 씨앗 심기로 시작하여, 매달 다채롭게 진행되던 문화공연장, 5시간 이상 진행되는 모두툴킷 워크숍, 열정뿜뿜 하던 서울시 평생교육 강사 연수의 참여자들, 모두의학교를 둘러싼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모두의학교를 다녀 간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평생학습의 즐거움, 성취감, 다양한 감정들과 모두의 학교가 주는 좋은 기억들이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김세희대리



“모두의학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귀여운 게임 세상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모두의학교에서 근무하며 가장 기분이 좋았던 시민분의 피드백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올해도 모두아띠님들과 실습생, 그리고 직원들이 발로 뛰고 한 분 한 분 인사하며 모두의학교가 일상 속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분들 덕에 “모두나”的 공간, “모두 나”的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모두의학교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모든 공간에서 시민들의 교류가 일어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작은 사회가 되었다고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



최고은주임

육아휴직을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모두의학교에서 ‘나’를 되찾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5도 폭염에도 반짝이는 눈빛으로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 늦은 저녁과 주말에도 열정이 가득한 학습자들을 보며 더 큰 에너지를 얻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배우는 모두의학교임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맑으시네요’ 이라고 인사해주시는데요, 모두의학교를 애정하는 제 마음이 그분들께도 전달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체력적,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버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해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날, 모든 순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2023년



이지형주임



올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제가 맡은 시설분야에서는 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며 이것 저것 신경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은 동료들 몇 명이 모두의학교를 떠나 다른 캠퍼스로 갔고, 또 좋은 동료들이 모두의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웃으며 2023년도 함께 고생한 팀원들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모두의학교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어 님은 시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학교 팀원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김지희주임

모두의학교는 제 20대의 마무리와 30대의 시작을 함께 한 소중한 공간이다 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가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료직원들부터 활동 자체에 대한 열정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까지... 이 곳에 있는 동안 밝은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동료들과 학습자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살펴봐주시고 챙겨주셨던 따뜻함이 기억에 남는다'는 커뮤니티 참여자 분의 소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따뜻하게, 그리고 학습자들의 성장을 위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주임



'모두의학교'라는 생의 소용돌이를 만나 가열차게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2023년 3월말 발령 첫날 공간 투어를 받으며 느낀 환희와 전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게 한 건 무엇보다 환대 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여름밤 막걸리 수업을 위해 커다란 술통을 끌고 걸음하는 학습자들, 오랜시간 조건없이 봉사하는 모두아띠와 문화행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직원들... 이들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지금의 모두의학교가 이뤄진 것이겠지요. 매순간 진심 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이미 지역을, 사회를 바꾸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곳에서 또 한번 느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소진주임

올해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저의 전공을 내려놓고 새롭게 공부하는 과정이 저에겐 큰 도전이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 생각들과 싸워나가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두의학교는 저에게 큰 선물과 같았고,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처음 모두의학교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밝게 맞아주던 직원들, 가족처럼 쟁기는 아띠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민들...



혼자만의 시간을 벗어나 함께하는 시간으로, 연말은 모두의학교와 함께 참으로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과 함께하길 바라며 올해를 감사히 마무리해봅니다.

모두의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2022년



이상호팀장

모두의학교는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시민이 학습 참여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돋는 새로운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①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학습자 참여 강화, ②시민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능동적 학습 참여, ③모두 툴킷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④커뮤니티학교 운영으로 시민의 ‘서로배움’ 실천, ⑤평생교육 전문가로의 성장이라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뿐 아니라 모두아띠, 키뮤니티 참여자, 평생교육관계자가 함께 서로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6년 간의 실험이 이제는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평생학습문화의 굳건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이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박미경팀장

‘만개한 툴립같이 찬란함과 다양성을 함께 품은 모두의 학교’ – 행복을 더하다.

이제 매년 봄이면, 찬란하리만큼 아름답게 만개한 툴립을 보게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까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피해쳐, 땅을 훌리며 툴립 구근을 함께 심었던 직원들이 떠오릅니다. 모두의학교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동안 함께 참여했던 시민들과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과



2021년



닮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체제를 정비하고, 조금 더 직원들이 행복하고, 조금 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자리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것은 더 잘하고, 멈췄던 것은 새롭게 설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의학교를 찬란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가 모두의학교에 했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학교 현장에서 떠났지만, 모두의학교를 떠올리면 생각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재밌다. 즐겁다. 이쁘다. 신선하다. 필요한 곳이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정겨운 곳이다. 모두나’

2017년~2020년



김혜영팀장

모두의학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처음으로 받은 서울시 고유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 모두의학교 추진자문단에 당시 진흥원 정책부서(정책·홍보팀) 팀장으로서 배석했을 때 설렘이 기억납니다. 그해 여름 고유사업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2018년 첫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공공 사업이 추진되는 모든 과정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었고 공공에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다시 기관의 정책팀장으로 몸담고 있지만, 늘 그때의 초심을 떠올립니다. 최근에도 가끔 2017년부터 발행된 모두의학교 마스터프로세스를 교과서 삼아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분들의 인사를 듣습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조금은 모두의학교 꿈이 실현된 듯합니다. 모두의학교의 시작과 현재까지 함께해주신 모두의학교 운영진과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 모두의학교 성과자료집

The 모두의학교

발간번호 SLEI-2023-B-009

발 행 일 2023.12.

발 행 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팀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전 화 02-852-7137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